■ 광주·전남 신종플루가 바꾼 일상

외출 후·식사 전 "손부터 씻자"

쇼핑카트 손잡이 세정제 뿌리고 사용

집단시설 발열 검사·해외 여행 기피

신종 플루 확산 속도가 빨라져 광주·전남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도 '위생 제일주의'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매일 자녀의 이상증세를 체크하는 것이 부모의 일상사가 됐으며, 공공기관이나 집단시설 등도 수용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손씻기 일상화**=신종플루가 가져온 새로운 풍경이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화장실에 세정제를 갖춰 놓고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할 때마다 손씻기를 감독(?)한다. 세정제를 사용하는 지, 흐르는 물에 씻는 지 등을 매번 참견한 탓에 자녀의 손씻기는 제법 능숙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패스트푸드점 등도 고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롯데마트 첨단점 1, 2층 매장 입구 한쪽에는 며칠 전부터 쇼핑카트를 미는 고객들이 줄을 서있다. 쇼핑 전에 카트 손잡이에 세정제를 뿌리는 코너에 들르기 위해서다.

신세계백화점 지하 매장 입구에는 '살균 물티슈' 기기가 설치됐다.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가게에도 살균 물티슈 기기가 마련됐으며, 어린이 손님들도 음식을 먹기 전 티슈로 손을 닦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주유소들도 사은품을 휴대용 화장지나 생수 대신 물티슈로 바꾸고 있다.

학교나 학원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도 수업 전에 손씻기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비누로 손을 씻는 어린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들도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세정제를 비치했다.

◇**발열 검사는 기본**=광주교도소와 각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27일부터 신입 수형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작했다. 각 경찰서도 모든 유치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도 전 학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키로 해 27일부터 일부 학교가 등교시간에 맞춰 열을 체온을 재고 있다. 광주대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다른 대학들도 기숙사생들에 대한 발열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집단 활동 및 해외 출장 자제**=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수학여행과 운동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각 급 학교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들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은 가급적으로 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은 별도 관리키로 했다. 호남대가 최근 학생들의 중국 연수를 취소하는 등 각 대학들의 학생 및 교수 해외 연수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개강 연기 광주대학교는 27일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학기 개강을 애초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7일로 1주일 연기했다. 대학 관계자가 개강 연기 공고문을 각 단과대학 출입문에 내걸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종플루 확산 초비상…휴업 학교 속출

광주·전남 확진 116명

학교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항바이러스제 투약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고,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을 반장으로 한 '신종플루 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지역 확진환자 수는 각각 33명, 83명 등 모두 116명으로 전날 97명에서 9명이 늘어났다. 확진판정 없이 의사처방전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환자도 광주 342명, 전남 78명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감염 학생 수가 36명에 달하면서 휴업, 개강 연기 등 학사일정 차질이 빚어지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하루만 광주시 광산구 한 고교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8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광주에서만 3개교 12명, 전남 1개교 1명 등 13명이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휴업 학교는 광주에서 중·고교 각 1곳, 전남은 고교 1곳 등 모두 3곳으로 늘어났고, 1곳은 보충수업을 중단했다.

대학가도 비상이 걸려 광주대는 31일 예정인 개강을 1주일 연기했다.

한편 이날 목포경찰서에서는 공익요원인 A(21)일병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격리조치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청산가리 넣은 딸 구속

검찰, 아버지와 공모여부 수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성준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어머니 등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A(여·26)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일부 증거를 확보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는 것 등을 꾸짖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아버지(59)도 체포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8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초등생 공기총 살해범 무기징역

광주지법 "유족에 참회하라"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등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담양 고서면으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19㎞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00억원대 사설 마권 판매 2명 구속

전남경찰, 99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인터넷 실시간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마권을 판 임모(여·49)씨 등 2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마권 구매자 9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판매총책 김모(56)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대전 지역의 사설 마권 판매총책으로, 지난해 3월 7일 오전 대전시 한 모텔에서 마사회의 인터넷 실시간 경마사이트에 접속해 구매자에게 2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파는 등 3개월여간 99명에게 1천37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사회에서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구입비를 입금받고 실제 경주와 같은 배율의 당첨금을 줬으며 구매자들은 실제보다 20% 싼 가격에 마권을 살 수 있는 점을 노려 사설 거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신안 해상 변사체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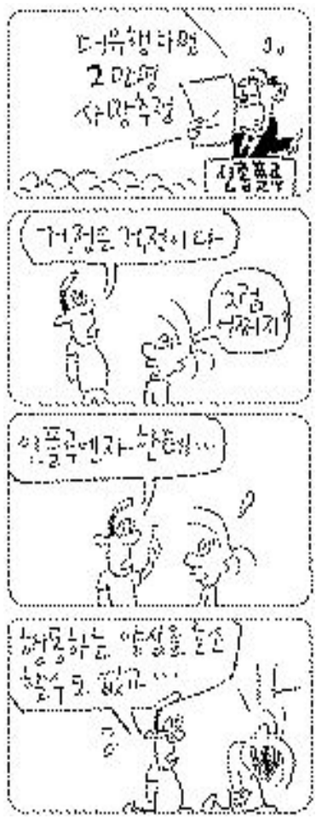
신안 해상에서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새벽 2시께 신안군 임자도 인근 갯벌에서 신안선적 10t급 자망어선 K호 선원 장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께에는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키 170㎝에 검은색 옷을 입은, 3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나원참 〈7894〉 김종두



승용차 바다 추락 2명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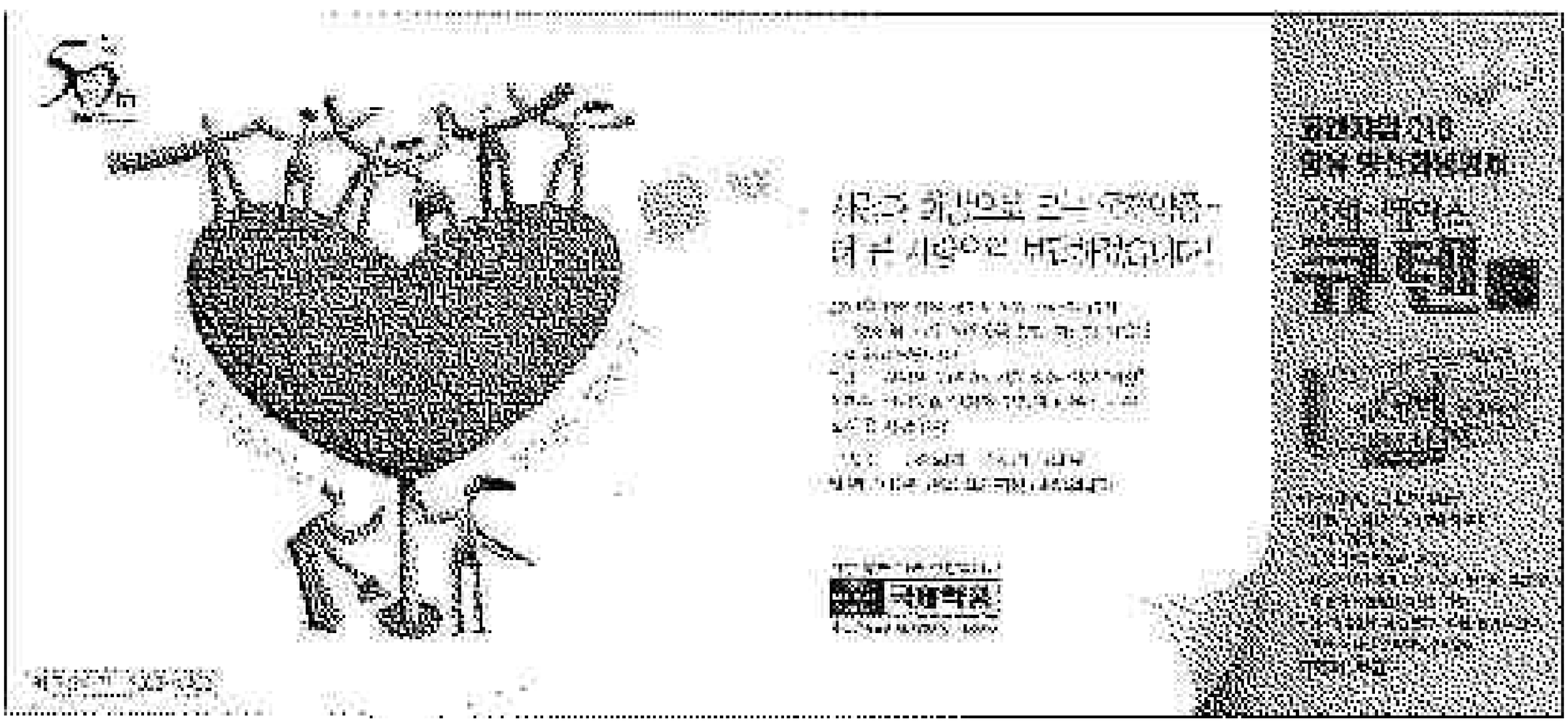
27일 오전 완도읍 대야 2리 선착장 앞 바다에서 렉스턴 승용차가 추락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을 보내 구조에 나섰으나 차에 타고 있던 김모(47)씨와 안모(여·25)씨는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화장실 공사 여고생들 항의 소동

쌍나팔

○…광주의 한 여고가 교내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바람에 용변이 급한 학생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학부모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소동.

○…27일 광주 S여고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3일부터 본관 5개 층 복도 양쪽에 위치한 화장실 보수공사를 동시에 시행해 학생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

○…학부모들은 "본관에 있는 12개 화장실 모두 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1천200여명의 학생들은 30m가량 떨어진 체육관과 별관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쉬는 시간이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며 분통.

○…S여고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 소음피해가 커 고심 끝에 일시에 공사를 벌였다. 쉬는 시간을 5분 늘려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해명. /김형호기자 khh@